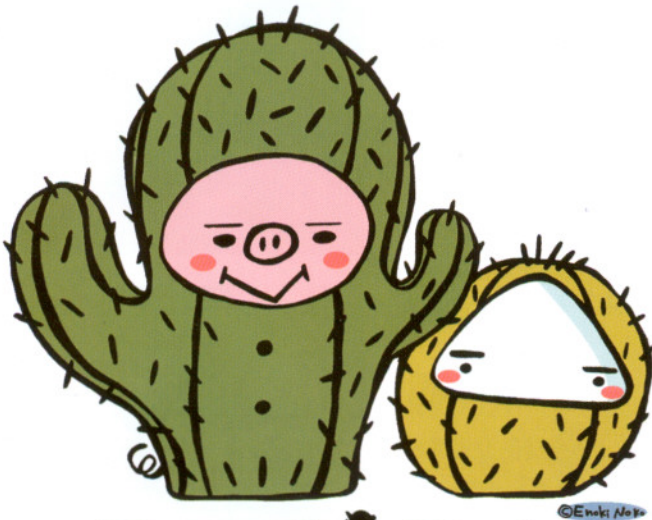


유쾌함을 선사해 주는 일러스트레이터 에노키노코



'멕시코 돼지', '카우보이 오징어' ... 왠지 조화롭지 않은 이들의 이름은 듣기만 해도 '웃' 하고 실소가 나온다. 척박한 서부의 사막지대에 축축한 오징어 카우보이는 불일치에서 오는 유머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멕시코 돼지라... 살사 소스가 등뿔버무려져 있는 돼지고기 요리가 바로 떠오르는 것은 나쁜일까



Boushi-Buta

이렇듯 즐거운 웃음을 주는 캐릭터들을 탄생시킨 장본인은 일본의 프리랜서 일러스트작가 '에노키노코'다. 나가노현 출신의 '에노키노코'는 2003년부터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시작했지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병원이나 매스컴관련 업종의 뒷편에서 배후자(?)로 일하는 등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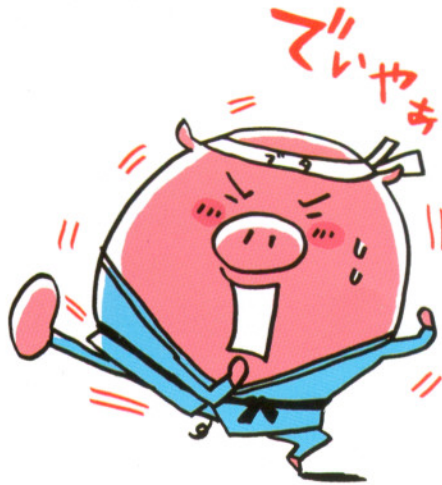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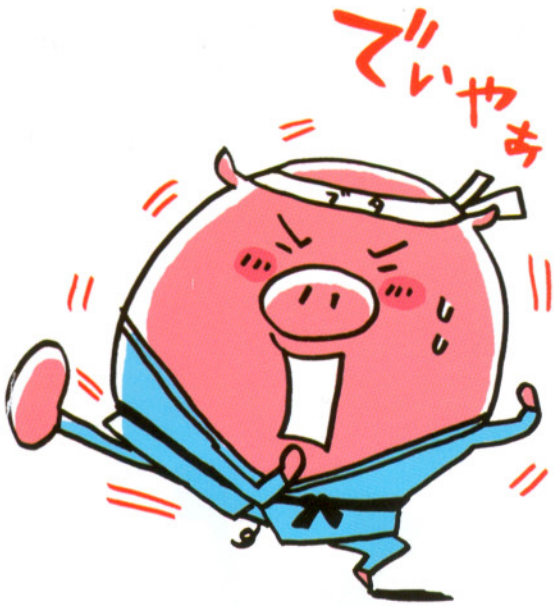
자신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에노키노코는

“보는 사람이 갑자기 웃, 하고 웃어버리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어요. 왜 있잖아요, 보는 것 만으로도 가슴 한 칸이 따뜻해 오는 그런 그림이요.”라며 바람을 내비친다.

현재 그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면서 어린이 그림 교실의 선생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한다. 에노키노코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발상과 천진난만함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즐겁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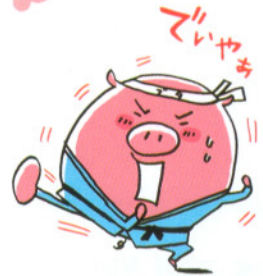
“밝고, 즐겁게, 그리고 우리 지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오늘도 크게 외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아자!” 에노키노코는 오늘도 지구 위에서 즐겁게 그림을 그린다. ■

자료협찬 _ T,O Entertainment



디-아 돼지

오늘도 아침부터 유도연습!
그리고 디-아 디-아 지쳤어...
역시 집에서 자는 것이 최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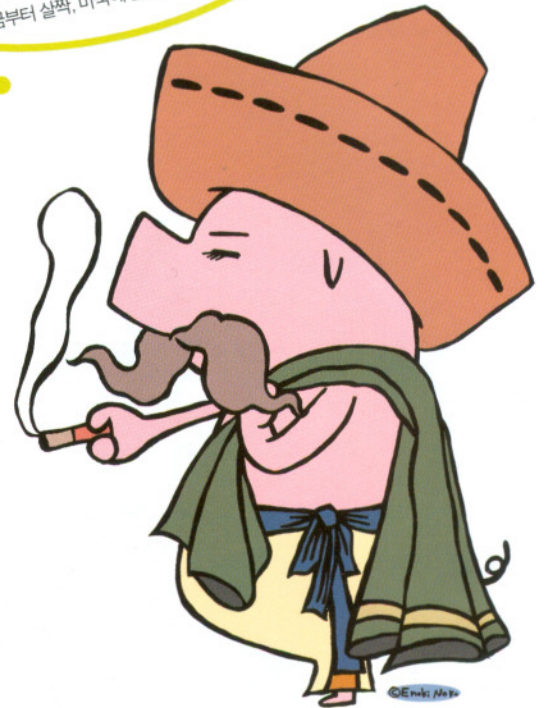
©ENOKI NOKO



멕시코 돼지

씨에스타- 씨에스타- 낮잠 낮잠 너-무 좋아.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녀석은 바보라니깐-
지금부터 살짝, 미국에 불법 취업!!

©ENOKI NOKO



©ENOKI NOKO

후다닥 오징어

미끄덩 다리로 후다닥 유도연습!
적은 오른쪽에서? 아니면 왼쪽에서?
아-무도 안오니까 밥이나 먹고 자자



©ENOKI NOKO

카우보이 오징어

본업은 미역 양식-- 물 온도는 중요해요-
소를 방목시키라고? 그까짓거, 풀만 먹이면 되지-
물소랑 젓소가 뭐가 다른지 사실 난 몰라-